

## 신증후군 환아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뇌정맥 혈전증 1예

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소아과

이은혜 · 이주훈 · 박영서

**서론** : 혈전증은 신증후군의 합병증으로 주로 대퇴부, 장간막, 폐의 정맥 등에 발생하나 뇌 혈전증은 드물다. 저자들은 신증후군 환아에서 광범위한 뇌정맥 혈전증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

**증례** : 9세 남아로 한 달 전 신증후군 진단받고 스테로이드 투여 후 호전되었다가 다시 재발 후 스테로이드에 반응 없어 신조직 검사 위해서 입원하였다. 환아는 복통과 두통을 호소하였고 전신부종이 있었으며 두통의 양상은 전두엽의 매우 심한 박동성 두통이었다. 혈압 110/67 mmHg 심박수 101회/분이었고, 혈액 검사상 혈색소 17 g/dL, 헤마토크리트 51.2%, 혈소판 266,000/mm<sup>3</sup>, 단백 5.3 g/dL, 알부민 1.8 g/dL, 콜레스테롤 380 mg/dL이었고 요 검사상 단백 4+였다. 혈액응고검사는 PT 0.86 INR, aPTT 43.3초 (25-35초), fibrinogen 583 mg/dL (200-400 mg/dL), antithrombin III 57% (80-120%), protein C 133% (70-140%), protein S 119% (65-140%), D-dimer 18.24 µg/mL (<0.4 µg/mL)였다.

뇌자기공명영상 소견상 위시상정맥동 (superior sagittal sinus)와 오른쪽 가로정맥동 (right transverse sinus)에 광범위한 혈전이 발견되어 헤파린을 투여하였으나 헤파린 투여 후 오심,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 와파린으로 바꾸어 항응고요법을 지속하였다. 신조직 검사 시행하지 못하고 스테로이드 감량하면서 사이클로스포린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. 2주 후 환아의 두통은 호전되었으며 한달 후 단백뇨도 음전되었다. 2개월 후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에서 혈전은 대부분 사라졌으며 현재 단백뇨 음전 상태로 재발 없이 외래에서 경과 관찰 중이다.

**결론** : 저자들은 신증후군 환아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뇌정맥 혈전증 1예의 치료 경험을 보고하는 바이다.